

일 대학 치기공과 재학생의 성격유형과 전공 및 직업만족도, 희망직무와의 관계

권 순 석

경동대학교 치기공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ity Type, Major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and Desired job position of Dental Technology Students

Soon-Suk Kwon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Kyungdong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offer fundamental data to develop a career program that helps the dental technology students find a proper and desired job position and to be satisfied with their job. To this goal, we analysed the differences found between the personality type, major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and preference in job position among the dental technology students.

Method: We conducted a survey using Myers-Briggs Type Indicator among the subjects who are sophomores and juniors of the dental technology department of a university in Gangwon province. Our analysis was grounded on 130 valid questionnaires.

Result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personality type ESTJ turned out the highest as 20.0%, while ENTP was the lowest as 0.8%. The preference was revealed as Extraversion (66.9%), Sensing (74.6%), Feeling (50.8%), Judging (61.5%) respectively.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nly the religious or non-religious state was statistically meaningful as (p<. 05) in emotional type (F).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in the major satisfaction. The job satisfaction was statistically meaningful as p<. 05 in Judgemental type (J). GPA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p<. 05 in the sensory type of the personality type. Desired job position was statistically meaningful as p<. 05 in emotional and cognitive types.

Conclusion: We found a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job satisfaction and the desired job position with respect to the personality type of dental technology students. However clear explanation of the correlations among these factors requires a more comprehensive survey and various approaches from the personality and psychology tests, which is to follow.

○Key words : Dental Technology, Satisfaction, Personality Type

교신저자	성명	권 순 석	전화	033-738-1363	E-mail	kss37@kduniv.ac.kr	
	주소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견훤로 815(후용리, 경동대학교) 충효관 4층					
접수일	2016. 4. 27		수정일	2016. 6. 1		확정일	2016. 6. 9

I. 서론

성격은 사람마다 복잡하고 다양한 개인의 행동을 규정하는 일반적 경향으로 인간의 발달, 정서, 인지 등의 분야와 함께 다양하게 연구되었으나, 형식적인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의도 거의 일치를 보이지 않았다(김재경, 2006). 이러한 개인마다 다른 성격으로 인해 사람마다 학습방법과 학습양식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많은 교육연구와 학생 지도방안에 대한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성격과 능력 차이를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학업성취도와 학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박세희, 2005).

스위스 정신과 의사인 Jung(Carl G. Jung)은 똑같은 사물을 보아도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보고 판단하고,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경향으로 보았고(김현주, 2010), Myers는 학업성취는 개인의 성격유형이 좌우하며, 교사들의 교수방법도 개인별 성격유형에 따라 선호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학생들을 지도할 때 개인별 성격유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박소정, 2014).

엠비티아이(MBTI) 성격유형 검사는 교육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인간에게 잠재되어있는 선천적 심리 경향인 양극적 선호경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상반되는 경향 중 개인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어떤 기능이나 태도를 먼저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한국MBTI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이 인정하는 반응에 대한 자기보고를 통해 근본적인 선호성을 알아내고 각자의 선호성이 개별적, 복합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결과를 예측하여 실생활에 도움을 얻고자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어 카운슬링과 심리치료의 보조 자료로 이용되었으며, 1980년대 들어와서 인사관리와 인력개발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전문가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었다(박세희, 2005).

한애경 등(2007)은 개인의 독특한 성격유형에 따라 행동경향이 일정한 반응양식이 나타나므로 개인별로 적합한 직무나 근무환경을 조사하기 위한 다양한 성격진단 방법 중 엠비티아이(MBTI) 성격유형 도구는 유용한 도구

중 하나라고 했고, 강민정(2014)은 여러 선행연구 결과 개인의 성격유형에 따라 직무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으며, 김난희(2011)는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접근이 쉬운 업무와 어려운 업무 환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격유형에 따른 적절한 근무배치와 함께 다양한 근무배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하였다. 박정운(2013)은 근무환경 같더라도 개인 성격유형에 따라 직무만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유형별로 직무만족의 차이를 감안한 인적자원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조직의 유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장현정과 김명애(2014)는 학생의 성격유형별 기질과 학습유형과 학습전략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므로 개인에게 적합한 학습법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고, 이금비 등(2014)은 대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라 정서적 경험과 관계가 있으므로 대학생활의 적응과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며, 박소정(2014)은 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라 적절한 교수방법을 개발 및 적성 등에서 개인차를 발견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학습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개인적인 성향을 이해하는 것은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취향을 고려한 각종 활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면에서 개인간, 부서간의 비생산적 갈등 완화 및 해소하고, 성격유형에 맞는 직무평가를 실시하므로, 개인과 개인간 또는 조직과 조직간에 원만한 상호활동을 통해 원활한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격유형(개성)을 감안한 교육여건을 조성할 때 좀더 바람직한 학습결과를 창출할 수 있고, 학생들의 성격유형을 파악하여 각 개인이 가진 선호 경향의 단점과 장점을 이해함으로써 학생의 성격유형에 적합한 전공과 직업을 선택하도록 진로 지도를 하여야 한다(박세희, 2005).

그동안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지능과 같은 인지적 능력을 주요 변수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격(personality)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는 성격이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성질이며, 개인별 행동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한은경과 김재철, 2007).

학과의 교수가 재학생별 성격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개인별 행동과 관심, 흥미분야와 선호도를 예상하고 이해하

는 데 도움이 되므로 학생 지도에 있어 학습방법이나 미래 직업과 직무선택에 있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학과 전공학습이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학과 및 직업 만족도를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치기공과 재학생들의 개인별 성격유형의 실태조사와 함께 개별 성격유형에 따라 전공만족도와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희망직무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성격유형별 지도방안 모색과 학습지원 및 취업 시 직무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G도 소재 D대학교 K대학 치기공학과 재학생 2, 3학년을 대상으로 2015년 11월 3일부터 21일까지 총 130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박세희(2005), 홍춘수(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기입식 간이 성격유형 검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성격유형은 선호경향인 외향형(E), 내향형(I), 감각형(S), 직관형(N), 사고형(T), 감정형(F), 판단형(J), 인식형(P)으로 구분하였으며, 선호경향을 바탕으로 성격유형을 조합하여 총 16가지 성격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종교유무, 전공만족도, 직업만족도, 평균학점, 희망직무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간이 성격유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09$ 으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과 간이 성격유형 검사(MBTI)에 따른 성격유형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성격유형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 하였으며, 성격유형 간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남학생' 85.4%, '여학생' 14.6%로 남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았고, 학년은 '3학년'이 67.7%로 '2학년' (32.3%)보다 많았으며, 종교에서는 '없다'가 56.9%로 '있다' 43.1% 보다 많았다. 전공만족도는 '보통이다'가 58.5%로 가장 높고, '불만족한다' (25.3%), '만족한다' (16.2%) 순으로 나타났고, 치과기공사 직업만족도에서는 '보통이다'가 51.5%로 가장 높고, '만족한다' (30.8%), '불만족한다' (17.7%)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학점은 'B(3.0~3.9)학점'이 55.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C(2.0~2.9)학점' 33.1%, 'A(4.0이상)학점' 9.2%, 'D(1.9이하)학점' 2.3%로 나타났으며, 희망직무에서는 '총(국부)의치'가 35.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재' 24.6%, 'CAD/CAM과 기타'가 각각 13.1%, '관교' 7.7%, '교정' 6.2%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30)

Variable	Subcategory	Frequency (N)	(%)
Sex	Male	111	85.4
	Female	19	14.6
Grade	2nd	42	32.3
	3rd	88	67.7
Religion	No	74	56.9
	Yes	56	43.1
Major Satisfaction	Poor	3321	25.3
	Average	76	58.5
	Good	2133	16.2
Job Satisfaction	Poor	23	17.7
	Average	67	51.5
	Good	40	30.8
Average Credit	< 4.0(A)	12	9.2
	3.0-3.9(B)	72	55.4
	2.0-2.9(C)	43	33.1
	1.9(D) <	3	2.3

Variable	Subcategory	Frequency (N)	(%)
Hope Job position	Porcelain	32	24.6
	Crown	10	7.7
	Denture	46	35.3
	Orthodontics	8	6.2
	CAD/CAM	17	13.1
	Other	17	13.1

2. MBTI에 따른 성격유형 및 선호경향

연구대상자의 16가지 성격유형별 조사결과 가장 많은 성격유형은 ESTJ(20.0%)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ESFJ(13.1%), ISTJ(10.0%), ESTP(8.5%), ENFP(8.5%), ISFJ(7.7%), ESFP(7.7%), ENFJ(6.2%), ISTP(4.6%), INFP(3.8%), ISFP(3.1%), ENTJ(2.3%), INTJ(1.8%), INTP(1.5%), INFJ(0.8%), ENTP(0.8%)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연구대상자의 선천적 심리경향인 4가지 선호경향에서 에너지방향(주의초점)은 외향형(E)이 66.9%로 내향형(I) 33.1% 보다 많았고, 인식기능(정보수집)은 감각형(S)이 74.6%로 직관형(N) 25.4%보다 많았다. 결정을 내리는 판단기능(판단, 결정)은 감정형(F)이 50.8%로 사고형(T) 49.2%보다 많았고, 행동을 취하는 이행양식(생활

Table 2. Personality type and preferences with regard to MBTI

Types	Frequency(N)	(%)
ISTJ	13	10.0
ISFJ	10	7.7
INFJ	1	0.8
INTJ	2	1.8
ISTP	6	4.6
ISFP	4	3.1
INFP	5	3.8
INTP	2	1.5
ESTP	11	8.5
ESFP	10	7.7
ENFP	11	8.5
ENTP	1	0.8
ESTJ	26	20.0
ESFJ	17	13.1
ENFJ	8	6.2
ENTJ	3	2.3
합 계	130	100.0

양식)은 판단형(J)이 61.5%로 인식형(P) 38.5%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MBTI Four preferences

Preference	MBTI dimension	N(%)
Source of energy	Extraversion(E)	87(66.9)
	Introversion(I)	43(33.1)
Way of gathering information	Sensing(S)	97(74.6)
	Intuition(N)	33(25.4)
Decision making	Thinking(T)	64(49.2)
	Feeling(F)	66(50.8)
How you relate to the external world	Judging(J)	80(61.5)
	Perceiving(P)	50(38.5)
		130(100)

3. 일반적 특성과 성격유형

1) 성별과 학년 및 종교에 따른 성격유형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성격유형의 경우 여학생이 외향형(E)과 인식형(P)에서만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성격유형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라서는 인식형(P)에서만 2학년이 3학년에서 높았고 나머지 성격유형은 모두 3학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교유무에는 '없다'가 내향형(I)과 사고형(T)에서 '있다'보다 높고 나머지 성격유형은 '있다'가 '없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유무에 따라서는 성격유형 중 감정형(F)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가 나타났다(Table 4).

Table 4. Personality type with regard to sex, grade, and religious or non-religious

(N=130)

Variable Dimension	Sex			Grade			Religion		
	Male (N=111)	Female (N=19)	t	2nd (N=42)	3rd (N=88)	t	No (N=74)	Yes (N=56)	t
	M(S.D.)	M(S.D.)		M(S.D.)	M(S.D.)		M(S.D.)	M(S.D.)	
Extraversion(E)	7.91 (2.78)	8.11 (3.10)	-0.278	7.88 (2.69)	7.97 (2.89)	-0.160	7.68 (2.96)	8.29 (2.62)	-1.222
Introversion(I)	6.14 (2.79)	5.89 (2.35)	0.367	5.71 (2.81)	6.30 (2.68)	-1.137	6.32 (2.80)	5.82 (2.62)	1.041
Sensing(S)	8.35 (2.94)	7.89 (3.28)	0.614	8.07 (2.56)	8.39 (3.18)	-0.560	8.03 (3.02)	8.63 (2.92)	-1.131
Intuition(N)	6.22 (2.59)	5.16 (2.19)	1.679	5.83 (2.42)	6.17 (2.62)	-0.702	5.73 (2.70)	6.50 (2.30)	-1.713
Thinking(T)	6.84 (2.78)	6.32 (2.82)	0.753	6.45 (2.41)	6.91 (2.95)	-0.873	6.93 (2.80)	6.54 (2.77)	0.803
Feeling(F)	7.14 (2.87)	6.21 (2.74)	1.317	7.00 (2.91)	7.01 (2.85)	-0.021	6.47 (2.80)	7.71 (2.80)	-2.498*
Judging(J)	7.74 (3.09)	6.95 (2.75)	1.044	6.90 (2.98)	7.97 (3.04)	-1.871	7.30 (3.06)	8.05 (3.01)	-1.404
Perceiving(P)	6.54 (2.77)	6.58 (2.77)	-0.056	6.79 (2.64)	6.43 (2.82)	0.682	6.28 (2.79)	6.89 (2.70)	-1.248

*p<.05, **p<.01, ***p<.001

2) 전공만족도와 직업만족도 따른 성격유형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따른 성격유형에서 ‘보통이다’가 외향형(E)과 인식형(P)에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성격유형에서는 ‘만족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만족도에 따른 성격유형에서는 ‘불만족한

다’는 인식형(P)에서, ‘보통이다’는 외향형(E)과 내향형(I)에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성격유형은 ‘만족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만족도에 따라서는 성격유형 중 판단형(J)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가 나타났

Table 5. Personality type with regard to major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N=130)

Variable Dimension	Major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Poor (N=33)	Average (N=76)	Good (N=21)	t	Poor (N=23)	Average (N=67)	Good (N=40)	t
	M(S.D.)	M(S.D.)	M(S.D.)		M(S.D.)	M(S.D.)	M(S.D.)	
Extraversion(E)	7.97 (2.49)	8.20 (2.99)	6.95 (2.55)	1.616	7.43 (2.57)	8.33 (2.80)	7.58 (2.96)	1.342
Introversion(I)	5.48 (3.12)	6.28 (2.59)	6.48 (2.50)	1.200	5.65 (3.11)	6.25 (2.62)	6.13 (2.71)	0.413
Sensing(S)	8.18 (3.09)	8.21 (2.85)	8.71 (3.39)	0.257	7.43 (3.46)	8.43 (2.78)	8.53 (3.03)	1.144
Intuition(N)	5.45 (1.92)	6.25 (2.70)	6.33 (2.83)	1.260	5.96 (2.34)	5.97 (2.60)	6.28 (2.64)	0.199
Thinking(T)	6.39 (2.58)	6.66 (2.70)	7.71 (3.28)	1.581	5.57 (2.55)	6.84 (2.72)	7.33 (2.86)	3.056
Feeling(F)	7.00 (2.47)	6.96 (2.97)	7.19 (3.12)	0.052	7.17 (3.21)	6.85 (2.73)	7.18 (2.91)	0.205

Variable Dimension	Major satisfaction			t	Job satisfaction			t
	Poor (N=33)	Average (N=76)	Good (N=21)		Poor (N=23)	Average (N=67)	Good (N=40)	
	M(S.D.)	M(S.D.)	M(S.D.)		M(S.D.)	M(S.D.)	M(S.D.)	
Judging(J)	7.39 (2.81)	7.62 (3.09)	8.00 (3.36)	0.250	6.48 (3.14)	7.42 (2.90)	8.63 (3.01)	4.111*
Perceiving(P)	6.18 (2.40)	6.92 (2.92)	5.76 (2.52)	1.858	6.83 (2.48)	6.82 (2.65)	5.93 (3.04)	1.472

*p<.05, **p<.01, ***p<.001

3) 평균학점과 희망직무에 따른 성격유형
 연구대상자의 평균학점에 따른 성격유형에서 'D이하 집단'는 감정형(F)에서, 'B집단'에서는 인식형(P)에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성격유형에서는 'A집단'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학점에 따라서는 성격유형 중 감각형(S)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가 나타났다(Table

6). 희망직무에 따른 성격유형에서 '도재 분야'는 내향형(I)에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성격유형은 'CAD/CAM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희망직무에 따라서는 성격유형 중 감정형(F)과 인식형(P)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가 나타났다(Table 7).

Table 6. Personality type with regard to GPA

(N=130)

Variable Dimension	Average Credit				F
	1.9< (D) (N=3)	2.0~2.9(C) (N=43)	3.0~3.9(B) (N=72)	≤4.0(A) (N=12)	
	M(S.D.)	M(S.D.)	M(S.D.)	M(S.D.)	
Extraversion(E)	6.67 (3.05)	7.42 (2.54)	8.18 (2.97)	8.67 (2.77)	1.134
Introversion(I)	5.67 (3.51)	5.58 (2.51)	6.35 (2.89)	6.67 (2.22)	0.910
Sensing(S)	6.67 (6.02)	8.02 (3.02)	8.08 (2.81)	10.83 (1.99)	3.629*
Intuition(N)	5.00 (3.60)	5.35 (2.76)	6.40 (2.24)	6.83 (2.98)	2.132
Thinking(T)	4.67 (4.04)	6.42 (2.71)	6.90 (2.69)	7.67 (3.20)	1.274
Feeling(F)	8.00 (4.58)	6.60 (2.90)	7.07 (2.75)	7.83 (3.04)	0.744
Judging(J)	7.67 (5.50)	7.35 (3.22)	7.44 (2.81)	9.67 (2.80)	2.038
Perceiving(P)	5.67 (4.16)	6.56 (3.31)	6.71 (2.38)	5.75 (2.56)	0.511

*p<.05, **p<.01, ***p<.001

Table 7. Personality type with regard to desired job position

(N=130)

Variable Dimension	Hope job position						F
	Porcelain (N=32) M(S.D.)	Crown (N=10) M(S.D.)	Denture (N=46) M(S.D.)	Orthodontics (N=8) M(S.D.)	CAD/CAM (N=17) M(S.D.)	Other (N=17) M(S.D.)	
Extraversion(E)	7.97 (2.65)	6.60 (2.06)	7.93 (3.06)	8.25 (3.41)	8.94 (2.33)	7.53 (2.98)	0.968
Introversion(I)	6.53 (2.65)	4.40 (2.91)	6.28 (2.65)	4.88 (1.72)	6.35 (2.99)	6.18 (2.89)	1.350
Sensing(S)	8.38 (3.02)	6.60 (2.67)	8.35 (2.82)	8.63 (3.24)	8.88 (3.53)	8.18 (2.92)	0.800
Intuition(N)	5.59 (2.76)	5.00 (2.58)	6.35 (2.54)	6.25 (2.37)	7.18 (2.55)	5.59 (1.97)	1.472
Thinking(T)	6.88 (3.24)	5.70 (1.63)	6.96 (2.45)	7.00 (3.38)	7.18 (3.18)	6.12 (2.66)	0.605
Feeling(F)	6.72 (2.41)	5.10 (3.10)	7.15 (2.68)	6.75 (2.81)	8.71 (3.15)	6.71 (3.15)	2.340*
Judging(J)	7.38 (3.01)	5.70 (3.36)	8.00 (2.97)	7.50 (2.82)	8.24 (3.78)	7.65 (2.29)	1.121
Perceiving(P)	5.81 (2.36)	5.00 (2.82)	7.15 (2.73)	7.13 (3.68)	7.65 (2.37)	5.82 (2.83)	2.502*

*p<.05, **p<.01, ***p<.001

4. 성격유형 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성격유형 중 선호경향 간의 상관관계에서 외향형(E)은 직관형(N, r=.508)과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내향형(I)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모든 선호경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1)가 나타났다. 내향형(I)은 사고형(T, r=.337)과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감각형(S), 사고형(T), 판단형(J)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1)가 나타났다. 감각형(S)은 판단형(J, r=.627)과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모든 선호경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1)가 나타났다. 직관형(N)은 감정형(F, r=.605)과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내향형(I)을 제외한 나머지 선호경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1)가 나타났다. 사고형(T)은 판단형(J, r=.626)과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감정형(F, p<.05)과 나머지 선호경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1)가 나타났다. 판단형(J)은 감각형(S, r=.627)과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인식형(P)을 제외한 나머지 선호경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Table 7. Correlations among the personality types

	E	I	S	N	T	F	J	P
Extraversion(E)	1							
Introversion(I)	-.244**	1						
Sensing(S)	.389**	.293**	1					
Intuition(N)	.508**	.006	.381**	1				
Thinking(T)	.311**	.337**	.617**	.426**	1			
Feeling(F)	.393**	.049	.409**	.605**	.201*	1		
Judging(J)	.324**	.310**	.627**	.447**	.626**	.423**	1	
Perceiving(P)	.303**	.088	.289**	.502**	.252**	.599**	.151	1

*p<.05, **p<.01

($p < .01$)가 나타났다. 인식형(P)은 감정형(F, $r = .599$)과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내향형(I)과 판단형(J)을 제외한 나머지 선호경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1$)가 나타났다(Table 8).

IV. 고찰

Myers는 개인의 성격유형이 학생의 행동과 사고를 전적으로 해석하거나 분류 할 수는 없지만 학업 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학업 성취도는 학습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적성, 적용, 흥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였다(한은경과 김재철, 2007).

개인별 학업성취도는 학생이 학과의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과 기술, 태도 및 가치관 등의 결과이자 개인별로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이수 했는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이영희 등, 2009), 본인의 노력여부가 학업 성취도에 가장 큰 요인이 되지만, 학교나 교수자가 학생 개인별 성격유형을 이해하고 선호하는 맞춤형 수업방식을 통해 학습의욕을 갖게 하여 동기부여를 한다면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며 더욱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박소정, 2014), 개인별로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성격유형에 맞는 학습양식이 필요하며(박세희, 2005), 입학시험을 통해 합격하여 지적능력이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학과 재학생들이 학과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 하는 결과는 개인에 따라 심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재학생들의 성격유형의 특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히 이해하여 학생들의 대학생활을 지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김희숙, 2003).

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성격유형의 경우 ESTJ(20.0%)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ESFJ(13.1%), ISTJ(10.0%) 순이었으며 INFJ(0.8%)와 ENTP(0.8%) 유형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민자와 박선영(2003)의 연구에서는 ISTJ, ISFP유형순으로, 임승환 등(2008)의 연구에서는 ISTJ, INTP유형 순으로 나타났고,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희숙(2003)의 연구에서는 ISFP, ISFJ유형 순으로, 장

현정과 김명애(2014)의 연구에서는 ESFJ, ESFP유형 순으로,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영희 등(2009)의 연구에서 ISTJ, ISTP유형 순으로 가장 많았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나, 임상에 종사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은주 등(2005)의 연구와 의예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윤경 등(2007)에서 ISTJ, ESTJ유형 순으로 많았고, 미용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민영(2011)의 연구에서는 ESFJ, ESTJ유형 순으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난희(2011)의 연구와 치의학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한 김민진 등(2014)의 연구에서는 ESTJ, ISTJ유형 순으로 많았다는 결과와는 일부 일치하였다.

ESTJ 성격유형은 주기능이 사고(T)로 실질적이고 사실 중심적 유형이며, 인식할 때 주로 감각에 의존하고 판단할 때에는 주로 사고를 사용하는 ST형에 속하고 사실에 관심을 두는 특징이 나타나고(강민정, 2014),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용성이 없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나 필요할 때 응용할 줄 아는 특성이 나타난다(김은주 등, 2005). 또한 ESFJ유형은 친선 도모형으로 성실하며 사교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봉사심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최민영, 2011). 치과대학 학생들이 외부세계를 조직할 때 유연하고 적응적이기 보다는 조직적이며 구조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한 김민진 등(2014)의 결과가 치기공학과 재학생들의 성격유형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대상자의 선천적 심리경향인 성격유형의 선호경향에서는 외향형(E), 감각형(S), 감정형(F), 판단형(J)이 각각 내향형(I), 직관형(N), 사고형(T), 인식형(P)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장순(2002), 김현주(2010)의 연구에서는 외향형(E), 감각형(S), 사고형(T), 인식형(P)의 비율이 높았고,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영희 등(2009)의 연구,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승환 등(2008)의 연구, 의예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윤경 등(2007)의 연구에서는 내향형(I), 감각형(S), 사고형(T), 판단형(J)이, 정민자와 박선영(2003)의 연구에서는 내향형(I), 감각형(S), 사고형(T), 인식형(P)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희숙(2003)의 연구에서 간호과 학생들은 내향형(I), 감각형(S), 감정형(F), 인식형(P)이, 김난희(2011)의 연구에서 요양보호사와 김민진 등

(2014)의 연구에서 치의학 전문대학원생은 외향형(E), 감각형(S), 사고형(T), 판단형(J)이 더 많았다는 결과와는 일부 차이가 나타났으나, 미용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민영(2011)의 연구와는 일치하고 있다. 이는 외향성(E)인 사람은 사교성이 있고 대인관계에서 적응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어 교우관계에 적응을 잘한다(김세영, 1999)는 결과와 Jones 등의 연구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다른 전공자보다 사회적으로 훨씬 외향적이고 보다 높은 수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다(이영희 등, 2009.-재인용)는 결과와 판단형(J)은 과제를 계획, 조직하고 정해진 과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는 학습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유형이다(최민영, 2011)라는 특징을 고려 할 때, 치기공학 전공학생들이 전문 기술을 함양 후 자신의 치과기공소를 개업하여 거래처 치과를 개발과 인사관리 등 미래 경영자로서의 필요한 성격유형과 환자마다 다양한 유형의 보철물과 거래처 치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보철물을 제작해야 하는 직업적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 중 종교유무에 따라서는 성격유형 중 감정형(F)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가 나타났다. 이는 감정형(F)은 자신과 타인에게 주어지는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석이나 논평보다는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조화를 선호하고(김세영, 1999), 인간의 동기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과제는 감정형이 더 좋아한다(박소정, 2014)는 특성과 함께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주관적이고 개인적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경향이 나타난다(정민자와 박선영, 2003)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되며, 치기공과 학생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감정형(F)의 선호지표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따른 성격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직업만족도에서는 성격유형 중 판단형(J)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가 나타났다. 이는 판단형(J)의 경우 외부세계에 대처해 나갈 때 사고나 감정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인식형(P)은 감각과 직관을 주로 사용한다(정미자와 박선영, 2003)는 특징과 획일적, 계획적이고 정해진 시간

에 따라 수업과 평가, 과제를 제출해야하는 체계성을 중시하는 교육환경이 사고형(T)과 판단형(J)의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한은경과 김재철, 2007)는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치기공학과 입학생들은 학과선택에서 본인의 의사와 함께 가족 및 친인척, 담임선생님, 친구 등의 조언에 따라 지원하는 경향이 많으며, 취업시 다양한 치과기공사의 직무 중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연구대상자의 평균학점에 따라서는 성격유형 중 감각형(S)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가 나타났는데, 이는 이영희 등(2009)의 연구에서 감각형(S)과 판단형(J)이 유의하게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다는 결과와 유사하나, 윤혜경(2012)의 연구에서 선호경향과 학습유형의 상관관계는 나타났지만 정확합치의 관점에서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는데 이는 성격유형에 따른 선호경향이 학습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고, 박세희(2005)의 연구에서 사고형(T)이 감정형(F)보다 통계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왔을 뿐 나머지 성격 유형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보고와, 홍준수(2009)의 연구에서 외향성(E)-내향성(I)과, 사고형(T)-감정형(F)에서 학업성취도에서 차이를 나타냈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나타난다.

한은경과 김재철(2007)의 연구에서 감각적 사고형(ST)과 감각적 판단형(SJ), 외향적 직관형(EN)일 때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들 성격유형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선호하고, 반복과 훈련,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과정을 잘 견뎌내는 성향으로 단계적 과정 속에서 지식습득이 필요한 대학교육 과정과 잘 맞다고 하였다. 치기공과 교육과정도 각 직무별 전문 의료기사 양성을 위해 저학년부터 다양한 치아보철물 제작과정을 순차적, 단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며, 고학년이 갈수록 다양한 보철물 케이스와 가철성 보철물과 고정성 보철물이 복합된 보철물을 제작하는 학습과정으로 교육과정이 이뤄져 있으며, 이러한 교육과정을 반영한 실기 국가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며, 강민정(2014)은 비보수적 대학생들 성격유형을 연구한 Storm의 연구에서 성격유형과 학업성취 간에는 아무런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2년 후 실시한 추후 연구에서

학업성적과 JP유형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는 결과를 고려 할 때 차후 더 많은 치기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희망직무에 따른 성격유형에서 감정형(F)과 인식형(P)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가 나타났는데, 강민정(2014)의 연구에서 보험설계사의 경우 성격유형에 따라 직무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대학교에 입학한 학부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성격유형의 패턴은 대학 졸업 후 전문분야 집단에 속할 때 까지 연장된다(박재용과 박우성, 2005)는 결과를 고려할 때, 다양한 치과보철물을 제작해야하는 실습교과목이 많은 학과의 특성상 학생 개인의 성격에 따라 호불호(好 不好)가 갈리는 수업에 대한 성향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희망직무 중 '도재' 파트에서 내향형(I)의 성격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내향형(I)의 경우 많은 과업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조용히 이뤄질 때 더 재미있어 하고 만족해하며 개인적인 공간을 선호하고 혼자 처리하는 일을 선호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내향형(I)의 특성은 심미성이 매우 강조되고 주로 여성이 축성(build-up)업무를 담당하며 많은 여학생들이 취업처 선택시 선호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학과에서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 지도시 개인의 성격에 따른 구체적인 지도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대상자의 성격유형 중 선호경향 간의 상관관계에서 외향형(E)은 직관형(N, $r = .508$)과, 내향형(I)은 사고형(T, $r = .337$)과, 감각형(S)은 판단형(J, $r = .627$)과, 직관형(N)은 감정형(F, $r = .605$)과, 사고형(T)은 판단형(J, $r = .626$)과, 판단형(J)은 감각형(S, $r = .627$)과, 인식형(P)은 감정형(F, $r = .599$)과 각각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선호경향이 상호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1$)가 나타났다. 이는 박소정(2014)의 연구에서 Jung의 심리기능 이론에서 인간의 행동이 겉으로는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변화무쌍하게 보여 지지만, 매우 질서정연하고 일관성 있게 다루어지며, 감각(S), 직관(N), 사고(T), 감정(F)등의 네 가지 과정은 지향기능으로서 네 가지 기능이 변화하는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같은 행위를 나타내는 심리 행위의 특수한 형태라고 하는 성격유형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 대학의 치기공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국 치기공학과 학생에게 일반화 하는 데는 무리가 따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 수의 지역에서 더 많은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고, 간이 형식의 성격유형 검사지를 사용하였기에 정식 성격유형 검사결과와 오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자기보고 형식의 설문지 조사를 실행 하였으므로 연구대상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심도 있는 면접과 관찰 및 다른 관련 요인을 추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일 대학의 치기공과 재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전공과 직업만족도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미래 직무선택에서 개인의 성격유형에 차이여부를 분석하여 재학생들의 전공과 직업만족도를 높이고 성격유형에 따른 올바른 희망 직무선택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G도 소재 치기공과 2,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기공학과 재학생들의 성격유형은 ESFJ(21.6%)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ESFJ(13.1%), ISTJ(10.0%), ESTP(8.5%) 순으로 나타났으며, INFJ(0.8%)와 ENTP(0.8%)가 가장 적었다. 선호유형에서는 외향형(E, 66.9%), 직관형(N, 25.4%), 감정형(F, 50.8%), 판단형(J, 61.5%)이 각각 내향형(I), 직관형(N), 사고형(T), 인식형(P)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학년, 전공만족도에 따라서는 성격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종교유무에서는 감정형(F)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가 나타났고, 직업만족도에서는 판단형(J)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가 나타났다. 평균학점에서는 감각형(S)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

가 나타났고, 희망직무에서는 감정형(F)과 인식형(P)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가 나타났다.

3. 연구대상자의 성격유형 간의 상관관계에서 외향형(E)은 직관형(N, $r = .508$)과, 내향형(I)은 사고형(T, $r = .337$)과, 감각형(S)은 판단형(J, $r = .627$)과, 직관형(N)은 감정형(F, $r = .605$)과, 사고형(T)은 판단형(J, $r = .626$)과, 판단형(J)은 감각형(S, $r = .627$)과, 인식형(P)은 감정형(F, $r = .599$)과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1$)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치기공학과 재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라서 직업만족도와 희망직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재학생의 취업진로 시 개인의 성격유형에 따른 직무선택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과기사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성격유형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설명력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더 많은 치기공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방식의 성격심리 검사를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 Choi MY. Analysis of cosmetology-majored students' personality types and ability to perform studies. Konkuk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2011.
- Han AK, Kim OS, Won JS. A study on job stress and coping method by the personality types of clinical nurses. J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3(2), 125-136, 2007.
- Han EK, Kim JC. Relationship among the MBTI personality types and academic achievements according to gender of university students. J of educational research, 14(2), 149-172, 2007.
- Hong CS. Research on th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by the MBTI type of personality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2009.
- Jang HJ, Kim MA. Temperament by MBTI personality types, learning styles and learning strategies in nursing students. The J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9), 400-410, 2014.
- Jung MJ, Park SY. The components of love and the types of love according to the MBTI personality types. J of human ecology, 5(1), 35-54, 2003.
- Kang MJ. An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MBTI personality types, job satisfaction, customer orientation and turnover intention. Ulsan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2014.
- Kim EJ, Lim JY, Lee HI. A study on MBTI personality type and learning organization. The J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1(3), 265-273, 2005.
- Kim HJ. Relationship of personality type to stress-coping pattern and school adjustment among high school students. Konkuk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2010.
- Kim HS. The effec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self-efficacy on course interest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edical students. J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2(4), 385-393, 2003.
- Kim JK. Organization members' personality pattern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Kwangwoon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2006.
- Kim MJ, Park KP, Seo DG, Ihm JJ. The relationship between dental graduate students MBTI type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problem-based learning. Korean J of medical education, 26(4), 291-297, 2014.

- Kim RH. The analysis on how MBTI personality type can influence on the job stress and coping method of care helpers. Sahmyook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2011.
- Kim SY.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on MBTI and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1999.
- Lee KB, Lee TY, Lee HC. The study of emotional experience to MBTI personality type in university students. *J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2(3), 188-194, 2014.
- Lee YH, Lee YM, Kim DK.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s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levels of dental Students. *The J of the human development*, 16(1), 179-196, 2009.
- Lim SH, Kim TH, Park JI. MBTI personality types and MMPI clinical characteristics profiles of clients at college counseling centers. *The Korea J of youth counseling*, 16(2), 91-104, 2008.
- Oh YK, Jang JY, Park SH, Ryu SY. The characteristics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in premedical students. *The medical J of chosun university*, 32(1), 19-27, 2007.
- Park JS.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 of the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stress coping behavior in MBTI personality type. Konkuk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2002.
- Park JY, Park WS.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J of Korean academy of organization and management*, 29(3), 95-124, 2005.
- Park SH. The relevance of MBTI personality types to mathematics prefer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Kookmin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2005.
- Park SJ. Effects of the differentiated method based on the type of MBTI personality on the learning of mathematics. Dongguk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2014.
- Park JO.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working condition and personality typ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2013.
- Yoon HK. The relations among MBTI preferences, study types and learning strategies. Kookmin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2012.

<http://www.mbti.co.kr/>